



산업안전보건법 국제비교

- 독일, 미국, 영국, 일본, EU

정진우 저 / 한국학술정보 / 2013. 5. 3

본서는 저자 정진우가 산업안전보건정책을 담당하면서 오래 전부터 필요하다고 느껴왔던 주요국가의 산업안전보건법제를 비교하여 소개한 책이다.

본서는 외국의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서가 국내에 전혀 소개되어 있지 않은 점을 감안할 때, 외국의 산업안전보건법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독자들로서는 독일, 일본, 미국, 영국 등 다양한 국가의 산업안전보건제도에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저자의 오랜 연구 결과의 산물을 손쉽게 책으로 만나볼 수 있게 되었다.

여느 법과 마찬가지로 산업안전보건법도 전체적인 체계를 이해하여야만 구체적인 부분에 대한 이해를 정확하게 할 수 있다. 본서는 주요 외국의 산업안전보건법의 구조, 체계, 성격 및 의무 이행방법 등을 국가별로 분석적으로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각국의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과 각국의 산업안전보건법의 특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종합적이고 일목요연하게 핵심적인 내용부터 구체적인 내용까지를 소개하고 있다.

나아가 최근의 산업안전보건정책 동향도 포함하고 있어 산업안전보건의 국제동향을 파악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산업안전보건 분야에 종사하는 분들이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지평을 넓히고 아이디어를 얻는데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산업안전보건정책 담당자는 물론 학계, 산업현장의 실무자들에게도 일독을 꼭 권하고 싶다.

책은 총론(제1편)을 포함하여 여섯 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2편 독일

독일의 산업안전보건법은 원래 다중적이고 복합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다가 1996년에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기본법에 해당되는 법(산업안전보건보호법)이 제정됨으로써 많은 부분이 통일적으로 규율되게 되었지만 여러 법으로 분산된 상황은 크게 변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공법인 산재보험조합의 자율적 규범으로 방대한 산재예방규칙이 제정되어 강제적 규범으로 집행되는 것이 큰 특징이다. 감독조직도 주정부의 영업 감독관과 산재보험조합의 기술 감독관의 이원적이고 충실한 체계를 가지고 있다. 처벌수준이 높지 않음에도 높은 안전보건수준을 유지하는 비결에 이러한 감독조직이 한 몫을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일찍이 공법(公法)인 산업안전보건법외에 사법(私法)으로서의 안전배려의무 법리가 개발되어 적용되고 있다.

제3편 미국

미국 산업안전보건법의 가장 커다란 특징은 사용자에게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확보할 일반적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점이다. 이 편에서는 일반적 의무의 개요와 이것의 입법경위와 구성요건을 상세히 소개하고 있다. 사용자에게 이 일반적 의무를 부과하는 대신에 근로자에게 산업안전보건법에 근거한 사법상의 권리를 부여하지 않고 있는 점 또한 미국의 산업안전보건법의 특징이다. 여기에서는 이러한 미국의 산업안전보건법의 성격을 한 편의 논문과 같이 자세히 분석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법률에서 근로자와 사용자에게 근로감독관이 사업장을 감독할 때 감독관을 동행할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또한 미국의 복잡한 산업안전보건기준의 체계를 알기 쉽고 일목요연하게 설명하고 있다.

제4편 영국

영국의 산업안전보건법은 로벤스(Robens) 보고서를 기초로 제정된 법이다. 그리고 “합리적으로 실현 가능한 범위에서”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하고 있고 규제를 유연하게 규정하고 있는 점이 큰 특징이다. 이 편에서는 이러한 영국의 산업안전보건법의 제정 경위와 법적 특징 및 성격을 심층적으로 규명하고 있다. 그리고 최근의 산업안전보건정책 동향으로, 위험성 평가와 단체과실치사법에 대해 그 배경과 경과, 내용 등을 자세히 소개하고 있다. 또한 영국의 주요한 안전보건규칙을 각 규칙별로 조목조목 설명하고 있다. 영국법 전반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주옥과 같은 설명이 눈에 많이 띈다.

제5편 일본

일본의 노동안전위생법은 우리나라 산업안전보건법이 탄생되는데 결정적인 도움을 준 법으로 우리나라 산업안전보건법과 많은 유사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내용적으로 자세히 들여다보면 적지 않은 점에서 우리나라 산업안전보건법과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 특히 안전보건관리체제에 있어 우리나라 산업안전보건법보다 정교한 내용을 갖추고 있으며, 안전배려의무의 범위도 우리나라보다 훨씬 발달되어 있다. 감독체제도 우리나라와 같은 일반감독관 제도이지만 산업안전전문관, 산업위생전문관제도와 근로감독관 직렬제도를 통하여 나름대로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다. 안전보건규칙에 있어서도 우리나라와 같이 명령통제적인 기준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우리보다 정교하고 현실적합성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제6편 EU(유럽연합)

이 편에서는 EU의 안전보건법제를 살펴보기 전에 EU의 목적과 역사, 기구, 안전보건 관련조직을 소개하고 있다. 그 다음으로 EU의 산업안전보건법제를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한 전제라고 할 수 있는 EU의 법령체계를 설명하고 있다. 제3장에서는 EU의 산업안전보건법제로서 그 중 가장 기초가 되는 기본명령과 부속명령-개별명령의 체계와 내용을 상세히 분석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EU의 주요제도인 기계류의 명령과 유럽규격 및 적합성 인증제도, 화학물질 방출사고 등에 대한 명령, REACH 규칙 및 CLP 규칙을 자세히 소개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산업안전보건법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